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9. 7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전화번호	3441-0611
------	---------	-------	----------	------	-----------

제 목: 2007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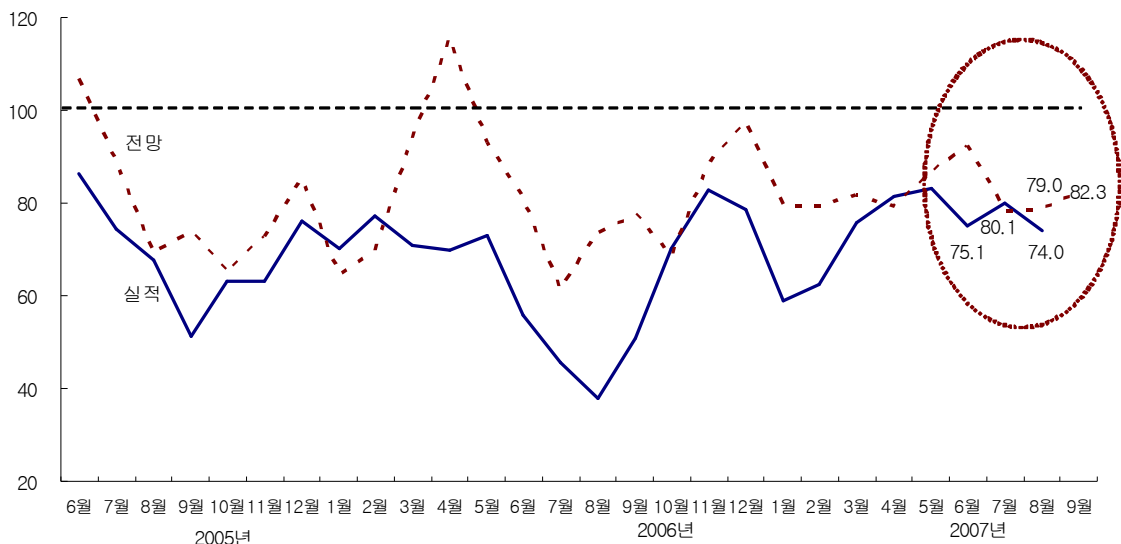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6.1p 하락해 지난 7월 80선을 조금 넘어선지 한달만에 다시 80선이 무너져 74.0을 기록함. 이로써 건설기업 체감경기 침체수준은 전월에 비해 악화됨.
 - 지난 7월에는 6월 하락에 대한 통계적 반등과 대형업체의 체감경기 지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5.0p 상승한 80.1을 기록했으나,
 - 8월 들어서는 다시 지수가 6.1p 하락한 74.0을 기록했는데, 이는 계절적 요인과 주택물량 침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이로써 체감경기 지수는 지난 3월 이후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함.
 - 대형, 중견, 중소기업체가 각각 전월대비 8.3p, 4.3p, 5.4p 하락한 91.7, 76.9, 50.0을 기록함으로써 업체 규모별 체감경기의 양극화는 여전함.
- 공사물량지수도 전월대비 8.5p 하락한 73.2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주택물량지수가 전월대비 15.9p나 하락한 64.0을 기록하여 침체수준이 심각함.
 - 토목 및 비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대비 각각 1.1p, 4.3p 하락한 78.1, 75.0을 기록하여 물량침체의 체감수준이 소폭 악화됨.
 - 반면, 주택물량지수가 전월대비 15.9p나 하락한 64.0을 기록함으로써 주택물량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침체수준이 8월 들어 매우 악화됨.
 - 업체 규모별로 보면, 특히 대형업체 주택물량지수가 전월대비 25.0p나 하락한 75.0을 기록해 대형업체가 주택물량지수 하락을 주도했음.
- 인력 및 자재수급지수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지수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며, 8월 들어 자금관련 지수가 나빠짐.
 -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100.4, 103.3을 기록하여 양호한 가운데, 인건비 지수가 89.2를 기록해 인건비 상황에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자재비지수도 74.2를 기록해 자재수급상황은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3월 이후 계속 자재비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급지수가 전월대비 7.3p 하락한 85.2를 기록하여 8월 들어 대금수급상황에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 특히, 자금조달지수가 전월대비 10.0p나 하락한 85.3을 기록해 최근 PF 대출 등 금융권의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져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자금조달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

2007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건설업체 체감경기 전월대비 6.1p 하락,
업체 규모별 체감경기 양극화는 여전

- 2007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4.0을 기록함.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6.1p 하락하여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침체의 수준은 전월대비 다시 악화됨.
 - 지난 6월 예년에 비해 여름철 계절적 요인에 의한 지수 하락이 한달 정도 앞서 시작한 것에 대한 통계적 반등과 대형업체의 체감경기 지수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 7월에는 지수가 전월대비 5.0P 상승한 80.1을 기록했으나,
 - 8월 들어서는 다시 계절적 요인 및 주택물량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임.
 - 이로써 지수는 다시 80선이 무너졌으며, 지수가 지난 3월 이후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 사이에서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음.

< 경기종합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 건설업체가 91.7, 중견업체가 76.9, 그리고 중소기업이 50.0을 기록함.
- 대형업체는 지난 7월에 지수가 전월대비 16.7p나 급상승하여 작년 11월에 100.0을 기록한 이후 다시 기준선인 100에 도달했으나, 8월 들어서는 다시 8.3p 하락함.
- 중견업체는 전월대비 4.3p 하락한 76.9을 기록해 전월대비 체감경기 침체의 폭이 다소 악화됨.
- 중소기업 역시 지수가 전월대비 5.4p 하락한 50.0을 기록해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이로써 대형업체의 체감경기가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업체 규모별 체감경기의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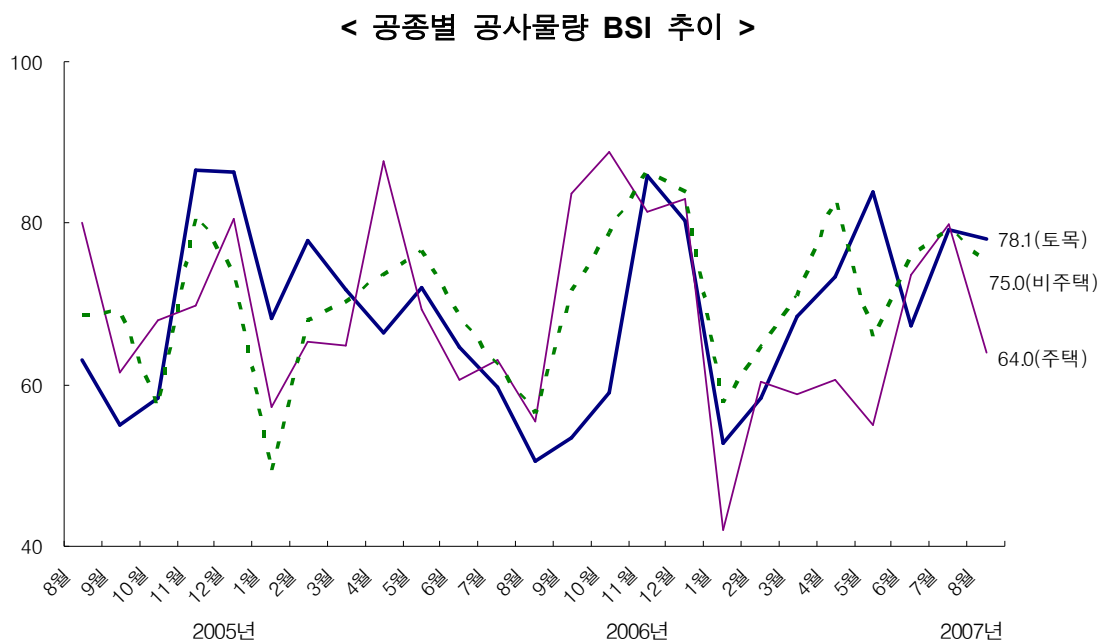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10월	11월	12월	2007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0.1	82.8	78.7	58.9	62.3	75.8	81.3	83.2	75.1	80.1	74.0	79.0	82.3
규모 별	대형	70.0	100.0	90.0	70.0	81.8	84.6	91.7	92.3	83.3	100.0	91.7	91.7
	중견	84.6	91.7	85.0	57.7	56.0	82.1	86.7	90.6	76.7	81.3	76.9	81.3
	중소	53.7	52.6	58.3	47.4	46.7	58.1	63.0	64.0	63.6	55.4	50.0	61.7
지역 별	서울	71.5	89.9	82.1	67.4	72.0	89.4	89.4	94.8	87.9	92.9	85.1	88.6
	지방	67.7	67.7	71.8	42.6	45.9	52.8	71.3	66.7	57.9	60.1	56.3	64.0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85.1, 지방업체가 56.3을 기록함.
- 서울업체의 지수가 전월대비 7.8p 하락했으며, 지방업체 지수도 전월 대비 3.9p 하락함.
- 이로써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가 모두 전월대비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악화되었고,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간의 체감경기 양극화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8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82.3을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 세부적인 건설경기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건설업체는 91.7, 중견업체는 80.8로 전망했으며, 중소기업체는 73.0으로 전망함.

공사물량지수 전월대비 8.5p 하락한 73.2 기록,
특히, 주택물량지수 전월대비 15.9p 하락한 64.0기록

- 2007년 8월 공사물량지수는 73.2를 기록함.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8.5p 하락하여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전월대비 공사물량의 침체 수준은 전월에 비해 악화됨.



- 공종별로 보면 토목 78.1, 주택 64.0, 비주택 75.0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주택물량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침체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토목 및 비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대비 각각 1.1p, 4.3p 하락한 78.1, 75.0을 기록하여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침체의 폭이 전월대비 소폭 악화됨.
 - 반면, 주택물량지수는 전월대비 15.9p나 하락한 64.0을 기록하여, 주택물량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침체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업체 규모별 공사물량지수는 대형업체 91.7, 중견업체 80.8, 중소기업체 43.1을 기록함.
- 전월대비로는 대형, 중견업체가 각각 8.3p, 3.6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체는 전월대비 14.2p나 하락하여, 업체 규모별 물량지수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됨.
 -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40대에 머물러 중소기업체들이 느끼는 전월대비 물량 침체의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3.2	91.7	80.8	43.1	85.7	53.3
	전망	84.0	100.0	84.6	64.5	89.1	75.9
토목	실적	78.1	116.7	68.0	44.4	95.1	50.9
	전망	84.6	100.0	91.7	58.3	92.8	71.0
주택	실적	64.0	75.0	73.1	40.7	74.7	46.8
	전망	74.5	90.9	72.0	58.2	77.3	69.6
비주택	실적	75.0	91.7	76.0	54.2	87.6	54.8
	전망	83.7	100.0	84.0	64.3	94.7	66.1

주 : 실적은 2007년 8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7년 9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전월보다 9.4p 하락한 85.7을 기록했고, 지방업체도 전월대비 7.8p 하락한 53.3을 기록하여 서울과 지방업체 모두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량침체의 수준이 악화됐으며, 서울과 지방업체간 물량지수의 양극화 현상도 아직 여전함.
- 2007년 9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84.0을 기록하여 8월보다는 전월대비 공사물량 침체의 수준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인력 및 자재수급지수 양호, 자재비지수 여전히 좋지 않은 가운데,
8월 들어 자금관련 지수 악화**

-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100.4, 103.3을 기록하여 인력과 자재수급에는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지수는 89.2를 기록하여 인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황에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재비지수는 74.1을 기록하여 3월 이후 계속해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금	실적	85.2	91.7	88.5	73.8	90.1	77.2
		전망	90.5	91.7	96.2	82.5	92.3	87.5
	자금조달	실적	85.3	100.0	88.5	64.6	92.8	73.4
		전망	93.9	100.0	103.8	75.4	98.4	88.2
인력	수급	실적	100.4	100.0	103.8	96.9	100.0	101.0
		전망	105.3	116.7	103.8	93.7	111.7	95.0
	인건비	실적	89.2	91.7	92.3	82.8	90.1	87.7
		전망	92.1	100.0	92.3	82.5	94.9	87.5
자재	수급	실적	103.3	108.3	103.8	96.9	109.9	92.9
		전망	99.0	100.0	100.0	96.8	102.9	92.8
	비용	실적	74.1	83.3	69.2	68.8	81.1	62.9
		전망	75.4	83.3	76.9	64.5	81.6	65.5

주 : 실적은 2007년 8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7년 9월 예측지수임.

- 공사대금수금지수, 자금조달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7.3p, 10.0p 하락한 85.2, 85.3을 기록하여 8월 들어 자금 관련 상황이 전월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대비 10.0p나 하락했는데, 최근 PF대출 등

금융권의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자금조달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보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역시 대형, 중견업체의 자금관련 지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자금관련 지수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